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9. 26.(목)

자료문의 : 공판1과  
전화번호 : 02-3480-2360  
주책임자 : 공판1과장

### 제 목

## 2024년 8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8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①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B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통신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하여 B가 친구인 진범 A의 부탁을 받고 진범 행세하여 1심 유죄 판결 및 과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대신 받은 사실을 밝혀 A를 사기 및 범인도피교사로 구속 기소, B를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 [대전지검]

② C가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식당에 동석한 D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D는 C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식당에서 결제된 주류영수증 등을 근거로 D의 허위 증언을 적극 탄핵하여 C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C와 D로부터 'C의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자백을 받아 C를 위증교사, D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순천지청]

③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 E가 공범 F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위 '옥바라지'를 대가로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고, F는 '누가 범행을 지시하였는지 모른다'라고 허위증언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E·F가 주고받은 서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F의 위증 자백을 받아 E를 위증교사로, F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서울서부지검]

④ 인터넷 물품 사기 공범 G에 대한 재판 중 자신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H에 대하여, G와 H간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분석하여 H의 사기 범행 공모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추가로 H가 G의 모친에게 변호사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변호사 수입료,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 H를 사기, 위증,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지·기소한 사례[부산지검]

⑤ 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남편 I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여,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먹인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 맞추기 정황을 파악한 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I의 자백을 받아 원 사건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I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강릉지청]

⑥ 강간 사건의 피고인 조카 J, 지인 K, L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증언 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에서, 교도소 접견 내역,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증언 직전 피고인을 만나 강간 범행 무렵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J, K, L 전원의 자백을 받아 위증으로 인지·기소한 사례 [서울남부지검]

[첨부: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대전지검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진범 행세를 부탁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과 약식명령을 대신 받게 한 범인도피교사범을 구속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친구 B에게 진범 행세를 부탁하여 대신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하고, 그 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B에게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 대한 항소심 공판 수행 중 기록에 편철된 통신내역과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B의 사기 사건과 징역형이 확정된 A의 별건 사기 사건의 기록을 대조하여,</li> <li>○ 사기 사건의 진범 A가 친구 B에게 진범 행세를 부탁하여 B가 A 대신 1심 유죄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어 A를 사기 및 범인도피교사로, B를 범인도피죄로 인지하고,</li> <li>○ 통신영장 3회, 압수영장 1회 발부받아 지인 집에 은신해 있던 A를 추적하여 체포영장으로 체포 후 구속 기소, B를 불구속 기소하여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2개월간 위증사범 2명, 범인도피사범 2명 인지·기소</p>
	최정민 (37기)	
	유호원 (변5) 現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2	순천지청 형사1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음주운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 증인이 그에 부합하는 위증을 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지인 D가 C의 부탁을 받고 ‘C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식당에서부터 운전하였다가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C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li> <li>○ 식당에 동석한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식당 영수증에 주류내역만 있고 음료수 내역은 없는 등 C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C를 음주운전죄로 법정 구속(징역 1년 6월 선고)되도록 하고,</li> <li>○ C와 D로부터 ‘C의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자백을 받아 C를 위증교사로, D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하여, 공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법질서 방해시도를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3명, 사문서위조사범 1명 인지·기소</p>
	신승희 (35기)	
	이선엽 (변11)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전세사기 범행의 주범이 공범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여 공범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총책 E가 공범 F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여, F가 ‘누가 범행을 지시하였는지 모른다’라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김지영 (36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사기 총책 E가 공범 F에게 소위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회유하고, F는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위증하여, 1심에서 총책 E에게 무죄가 선고되자,</li> <li>○ E의 별건 사기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E와 F가 주고받은 서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F로부터 위증 자백을 이끌어내고,</li> <li>○ E가 수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F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E의 위증교사를 명백히 밝혀,</li> <li>○ E를 위증교사로, F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5개월간 위증사범 6명, 범죄수익은닉사범 1명 인지·기소</p>
	류광환 (변5) 現 형사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가 수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F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E의 위증교사를 명백히 밝혀,</li> <li>○ E를 위증교사로, F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5개월간 위증사범 6명, 범죄수익은닉사범 1명 인지·기소</p>
4	부산지검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공범의 인터넷 물품 사기사건 재판에서 자신은 가담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의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 재판에서 공범 H가 자신은 가담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고, G의 모친에게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변호사 수임료,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li> </ul>
	정명원 (35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증 정신장애가 있는 G의 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H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모친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li> <li>○ G와 H간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H의 위증 및 사기 범행 가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li> </ul>
	유성운 (변9) 現 형사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의 모친 조사과정에서 H가 변호사를 사칭하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한 후 H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이끌어 내어,</li> <li>○ H를 위증,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지·기소하여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이 없게 하고,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li> </ul> <p>※ 3개월간 위증사범 5명 인지·기소</p>

순 번	소 속	공판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강릉지청 형사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폰 투약 사건의 피고인이 투약의 고의를 부인하고, 남편 I는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문하경 (37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과 I의 교도소 접견녹취록 1달 분량을 일체 분석하여, '필로폰을 몰래 먹인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 맞추기 정황을 파악한 후,</li> <li>○ 접견 녹취록,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을 토대로 I를 면밀히 추궁하여 위증에 대한 자백을 받아 원 사건에 추가증거로 제출하고,</li> <li>○ I를 위증으로 인지·기소하여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함과 동시에 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한 사례</li> </ul> <p>※ 4개월간 위증사범 6명 인지·기소</p>
	유제일 (변10)	
6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p><b>【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카,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례</b></p> <p><b>사건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년 전 강간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조카 J, 지인 K, L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양꼬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증언 전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증언한 사건</li> </ul>
	최선경 (35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의 조카, 지인들이 9년 전 평범한 식사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억하여 동일하게 증언하고, 증언한 양꼬치 식당 상호와 영수증의 식당 상호가 불일치한 점을 포착, 위증 수사에 착수하여,</li> <li>○ 교도소 접견 내역, J~L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J, K, L이 증언 직전 피고인을 만나 강간 범행 무렵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양꼬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담자 전원의 자백을 받아,</li> <li>○ J, K, L을 위증으로 인지·기소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강간 범행에 대하여 번의 자백하게 함으로써 조직적인 위증을 엄단한 사례</li> </ul> <p>※ 1개월간 위증사범 4명, 사문서위조 사범 1명 인지·기소</p>
	염준범 (변8) 現 형사3부	